

학문목적 학습자를 위한 복합문 구성 방안 연구*

- 종결표현에 따른 연결표현의 공기 관계를 중심으로 -

홍 윤 기

Abstract

Hong, Yun Ki. 2012. 10. 30. **A Study on Constructing Complex Sentences for Korean learners for Academic Purpose -Focused on the Co-occurrence of Connective Endings according to Sentence Ending-. *Bilingual Research* 50, 295-327.** In this paper, the communicative functions of sentence ending and the co-occurrence of connective endings in academic writing are presented. The linguistic forms of 6 communicative functions such as ‘expressing possibility’, ‘declaring’, ‘guessing’, ‘expressing situation’, ‘suggesting’, ‘expressing tendency’ used in academic writing are provided. And the meaning and correlation of the first connective ending and the second connective ending are indicated according to the communicative functions. 18 kinds of the communicative functions of sentence ending and the co-occurrence of connective endings are suggested. It comes out that some co-occurrence of connective endings are used regardless of the communicative functions of sentence ending, the others are not. To enhance the ability to write the complex sentences of Korean learners for academic purpose, the general co-occurrence of sentence endings should be presented. And then, the exceptional co-occurrence of sentence endings and the correlation of communicative functions should be known to learners in order to let them understand the peculiarity of the complex sentences. Above all, it is most important that teachers let learners understand of communicative functions of sentence ending and the co-occurrence of connective endings according to the

* 이 논문은 2011년도 11월에 숭실대학교에서 개최된 이중언어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집고 다듬은 것임.

communicative functions. (Kyung Hee University)

【Key words】 한국어교육(Korean language education), 학문목적 글쓰기(academic writing), 복합문(complex sentence), 연결표현(connective ending), 종결표현(sentence ending), 의사소통기능(communicative function), 의미범주(semantic category), 공기관계(co-occurrence)

1. 서론

이 연구는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학문목적의 글쓰기를 해야 하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복합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두 개의 연결표현과 한 개의 종결표현이 쓰인 복합문을 분석한다. 분석 과정에서 각 연결표현¹⁾은 대표 의미를 중심으로 범주화하고, 종결표현의 의사소통기능은 학술적 글쓰기라는 특정한 담화를 고려하여 규정한다.

이 연구는 두 가지 이유에서 출발한다. 학문목적의 한국어학습자들은 연결표현 개별 형태의 의미는 이해하고 있지만, 이것을 긴 문장으로 쓸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하다. 이러한 이유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복잡한 텍스트를 읽어내고, 그것을 논리정연하게 써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결표현들을 제대로 이용해서 써 내지 못한다. 연결표현은 사건과 사건, 상황과 상황 사이의 관계를 문장으로 옮길 때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도구이다. 연결표현을 적절히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외국인 학습자들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문장으로 옮겨 내지 못한다.

한편, 학문목적의 외국인 학습자들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논증적인 글쓰기에 익숙하지 않다. 특히 문장의 종결표현을 통해 실현되는 특정한 의사소통기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자신이 써야 할 글의 성격에 부합

1) 연결표현에는 연결어미뿐만 아니라 ‘-기 때문에’, ‘-임에도 불구하고’ 등의 복합형식도 포함된다.

하지 못하는 문장을 양산하고 있다. 논리적인 글에 포함되어야 할 글의 의도, 목적, 논리적 근거의 제시, 상황 제시, 논리적 추론,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 진단, 단정적 진술 등을 드러내는 데 유용한 종결표현의 기능²⁾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관계로, 학습자들은 내용의 적절성을 떠나 언어형식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된 학술적 글쓰기를 어려워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학문목적의 글쓰기에서 요구하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글을 쓰는 데 도움이 될 복합문 구성의 기초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학술논문에서 추출해 낸 문장을 분석하여 종결표현의 의사소통기능에 따른 연결표현의 공기관계를 제시하고자 한다.³⁾

연결표현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연구를 보면, 인과(최문석(2004), 권미미(2008), 안주호(2008), 김지혜(2009), 김호정·강남욱(2010)), 순차(김은경(2006), 이은경(2007), 구민정(2008), 노미연(2011), 이수연(2011)), 양보(서희정·홍윤기(2010), 권수정(2010)), 조건(임지아(2009)), 배경(이지영(1998), 손재은(2007), 박성욱(2010), 이소현(2011)), 결과(이은희(2006)), 전환(오경숙(2011)), 동시(이은희(2009))처럼 통사적 제약이나 의미, 그리고 유사 의미를 가진 형태와의 비교, 오류 분석 논의가 주를 이룬다.

한편, 한국어교육에서 종결표현의 의사소통기능을 논의한 연구에는 조현용(2007), 강현화(2007), 강현화·홍혜란(2010), 방성원(2011), 류수영(2010), 홍윤기(2012) 등이 있다. 조현용(2007)은 한국어 교재의 기능 교수요목을 비교 분석한 연구이며, 강현화·홍혜란(2010)은 한국어 모어 화자들의 화행 기능에 대한 인식을 연구한 것이다. 강현화(2007)에서는

2) 강현화(2007:4)에서도 담화에서의 화행기능이 주로 종결어미에 의해 수행된다고 밝히고 있다.

3) 이 연구는 'A'라는 의사소통기능을 담고 있는 종결표현은 '연결표현a + 연결표현b'와 같은 공기관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B'라는 의사소통기능을 담고 있는 종결표현은 '연결표현c + 연결표현d'와 같은 공기관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 실제 분석에서는 종결표현이 다르더라도 연결표현의 공기관계가 'A-a+b', 'B-c+b', 'A-a+d', 'B-c+d'처럼 중첩되는 경우도 있다.

‘지시적 화행’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재에 나타나는 67개의 종결표현을 대상으로 의사소통기능을 분류하였다. 종결표현의 의사소통기능을 넓은 범위에서 논의한 연구로는 방성원(2011)이 있다. 방성원(2011)에서는 한국어교재 3종 이상에서 출현하는 71개의 종결표현이 대화문에서 어떤 의사소통기능을 수행하는지를 분석하였다.⁴⁾ 학술논문과 같은 학술적 글쓰기의 실제 자료를 대상으로 종결표현의 의사소통기능을 다룬 논의는 류수영(2010), 홍윤기(2012)가 있는데, 종결표현과 연결표현의 공기관계를 학문목적 학습자의 학술적 글쓰기와 연계해 연구하였으나, 의사소통기능을 가진 종결표현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결표현 개별 형태와 의미에 대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연결표현의 공기관계에 초점을 둔다. 더불어 의사소통기능에 대한 연구를 참고하되, 학술논문에서 드러나는 종결표현의 의사소통기능을 설정하여 논의를 진행한다.⁵⁾ 이를 묶어 종결표현의 의사소통기능과 연결표현의 공기관계가 관련성이 있음을 살피고 학문목적의 한국어 학습자들이 참고할 만한 복합문 구성을 구체적 자료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
- 4) 이 연구들은 주로 한국어교재에 나와 있는 대화문을 대상으로 기능을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교육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대화문을 중심으로 의사소통기능을 교육하고, 의사소통기능을 중심으로 교재를 편찬하는 것은 한국어문법 교육에 유용한 방법이다. 하지만 일상 대화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학문목적 학습자의 글쓰기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 5) 종결표현의 의사소통기능은 강현화(2007)과 방성원(2011)에서 제시한 한국어의 의사소통기능을 바탕으로 하여, 학술적 글쓰기에서 적용 가능한 기능을 채택하였고,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한 기초자료 분석을 통해 학술적 글쓰기에서 주로 쓰이는 기능을 추출하였다. 아울러 서희정(2009)에서 면밀하게 논의하고 있는 복합형식의 종결표현의 의사소통기능 중 학술적 글쓰기에 적합한 것을 도입하였다. 기능의 명명과 관련하여 국립국어원(2005)의 문법항목에 대한 해설도 참고하였다.

2. 학술적 글쓰기에 나타나는 의사소통기능과 공기관계

이 연구에서는 학술적 글쓰기의 종결표현과 연결표현의 공기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200편의 학술논문(6)에서 뽑은 5,562개의 복합문을 분석하였다. 그 중에서 ‘가능성 표현하기, 단언하여 표현하기, 추측하여 표현하기, 상황 표현하기, 제시하여 표현하기, 경향(성) 표현하기’의 여섯 기능에 대한 공기 관계의 구체적 예들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7) 이 연구에서 논의할 종결표현의 의사소통기능과 언어 형식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종결표현의 의사소통기능과 언어 형식

의사소통기능	언어 형식
가능성 표현하기	-(으)ㄴ 수 있다/없다
단언하여 표현하기	-어야 하다/되다, -(으)ㄴ 것이다, -(으)ㄴ 것이 중요하다, -(으)ㄴ 뿐이다, -(으)ㄴ 수밖에 없다, -(으)ㄴ 것이 필요하다, -기 마련이다
추측하여 표현하기	-(으)ㄴ 것이다, -어야 할 것이다, -로 보이다, -로 보다, -(으)ㄴ/ㄹ 듯하다, -(으)ㄴ/ㄹ 것 같다, -라 하겠다, -듯하다, -어도 되겠다
상황 표현하기	-고 있다, -어 있다, -어 가다/오다, -어 주다, -(으)ㄴ 셈이다, -어 나가다, -어 두다
제시하여 표현하기	-고자 하다, -와 같다, -기로 하다, -려 하다

- 6)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출간된 한국어교육관련 학회 논문집,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에 실린 것이다.
- 7) 이 연구를 위한 기초 분석 과정에서 12개의 의사소통기능을 분석하였으나, 지면상 12개 모두를 다룰 수는 없었다. 6개의 기능을 검토하는 것으로도 공기 양상의 차이를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출현횟수가 가장 많은, 중간 수준의, 그리고 비교적 적은 것을 - ‘가능’ 765회, ‘단언’ 567회, ‘추측’ 506회, ‘상황’ 388회, ‘제시’ 239회, ‘경향(성)’ 124회 - 비교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경향(성) 표현하기	-기 어렵다, -을 보이다, -(으)ㄴ 경우가/도 있/많다, -(으)ㄴ 경우이다, -기 쉽다/쉽지 않다, -기 힘들다, -을 보여주다
------------	--

<표 1>의 종결표현들이 특정한 의사소통기능을 가지고 문장에 쓰였을 때, 연결표현과의 공기 양상을 분석한 결과, 선행 연결표현의 의미 범주가 동일하더라도 종결표현에 따라서 후행 연결표현에 쓰이는 의미 범주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⁸⁾

<표 2> 연결표현의 공기관계와 의사소통기능의 관계

종결표현의 의사소통 기능	가능성 표현하기	단언하여 표현하기	추측하여 표현하기	상황 표현하기	제시하여 표현하기	경향(성) 표현하기
	선행 연결표현의 의미범주	후행 연결표현의 의미범주				
【가정】 + 유사 이유 대립 방법 배경 조건	결과 목적 비교 선택 유사 배경 조건 기대부정	목적 첨가 배경 의문 결과 방법 판정	첨가 배경 이유 부정 대립 조건	대립 대상 배경 유사 이유 조건 기대부정	이유 유사 대립 배경 조건 결과 인용 배경 의문 비교 진환 대상 목적 선택	유사 방법 선택 유사 기대부정
【유사(동등) 관계】 9+ 이유 조건 결과 동시 유사 방법	가정 강조 결과 대립 동시 선택 유사 이유 인용 조건 기대부정	첨가 결과 유사 선택 동시 부정 의문 판정	가정 대상 목적 배경 정도 첨가	결과 동시 방법 이유 조건	결과 동시 대립 목적 배경 가정 이유 의문 선택 부정 조건	결과 유사 동시 대상 순차 의문 이유 방법 판정 조건

8) <표 2>의 왼쪽 칸의 표시는 선행 연결표현의 의미범주를 【**】으로 표시하였고, ‘+’ 옆에 후행 연결표현의 의미범주를 보인 것이다. 두 번째 칸부터 일곱 번째 칸에서 밑줄로 표시된 의미범주는 여섯 개의 의사소통기능에 모두, 굵게 표시된 것은 다섯 개의 의사소통기능에, 이탤릭체로 표시된 것은 네 개의 의사소통기능에 공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다.

9) 장경희(1995)에서 제시한 ‘-고, -(으)며’의 의미를 받아들여 사용한 것이다.

【이유】 + 유사 이유 조건 대상 선택 결과 대립 배경	가정 대상 대립 방법 목적 부정 순차 선택 순차 유사 이유 인용 배경 정도 조건 기대 부정	순차 의문 유사 배경 선택 이유 결과 조건 강조 대상 방법 첨가 대립	결과 대상 목적 유사 조건	대립 대상 선택 이유 판정	방법 이유 배경 동시 유사 비교 대립 대립 선택 조건	선택 대립 첨가 유사 가정 배경 대상 이유 조건	가정 결과 유사 이유 조건 판단
【대립】 + 이유 조건 방법 유사	가정 대립 대상 동시 목적 방법 부정 비교 유사 이유 조건	순차 목적 가정 첨가 이유 부정 조건 방법 대상 방법 기대 부정	대립 방법 비교 유사 이유 조건	방법 동시 유사 선택 비교 방법	이유 동시 유사 선택 비교 방법	유사 배경 이유 목적 조건 동시	가정 선택 의문 이유 조건
【조건】 + 이유 대립 유사 선택 배경	결과 대립 대상 방법 선택 순차 유사 이유 배경 첨가	의문 이유 부정 배경 선택 대상 대립 첨가 결과 유사 동시 조건	결과 대립 대상 부정 방법 순차 선택 유사 유사 첨가 기대 부정	대립 목적 부정 순차 이유 이유	유사 동시 대립 이유 배경 비교	배경	대립 목적 선택 유사 이유
【배경】 + 이유 방법 가정 조건 유사	가정 목적 방법 비교 유사 유사 조건 첨가 기대 부정	방법 대상 유사 목적 결과 이유 조건	가정 방법 선택 유사 이유 조건	방법 가정 이유 조건 동시 부정 유사 부정 기대 부정	방법 의문 이유 조건 가정	가정 강조 대립 이유	
【선택】 + 가정	가정 동시 대상 선택 이유 조건	결과 가정 유사 방법 목적 이유	가정 조건	목적 이유 대상 대립 방법		가정 대상	
【대상】 + 조건 유사	결과 배경 비교 선택 유사 이유 조건	방법 대립 조건	선택 유사 조건 판정	유사 배경 가정 부정 이유 방법 전환 동시 대립	유사 선택 대립 비교 방법 목적 조건	목적 순차	
【방법】 + 이유 유사 가정 선택 대립	가정 결과 대립 배경 선택 유사 이유 조건 첨가	유사 이유 결과 가정 첨가 동시 대상 부정 선택 비교 의문 대립	가정 결과 대립 부정 유사 이유 조건	이유 대립 결과 배경 유사 선택 가정 방법 첨가 순차 대상 방법 기대 부정	유사 이유 가정 동시 대상 대립	배경 선택 이유	
【첨가】 + 이유 방법 유사	결과 유사 이유	결과 방법 유사 조건 순차 이유 판정	방법 이유 조건	유사 방법 이유 대상	유사 방법 이유	결과 방법 이유	

【부정】 + 이유 유사	가정 방법 유사 이유 조건 첨가	결과 방법 의문 이유 목적 기대부정	가정 방법 유사 이유	대립 유사 이유 목적 결과	이유 유사	이유
【목적】 + 유사 이유 대립 배경	가정 결과 대립 배경 이유 유사 기대부정	유사 이유 의문 대립 동시 대상 방법 부정 순차	대립 대상 배경 유사 이유 첨가	유사 이유 대립 배경 결과 대상	유사 동시 대상 방법 이유 조건 의문	배경
【순차】 + 유사 이유	동시 부정 배경 유사 조건	유사 의문 조건 이유	방법 유사 이유 조건	유사 이유	목적 유사 이유	목적
【비교】 + 이유	가정 대립 방법 배경 유사 이유 조건 첨가 판정	결과 동시 이유 목적 방법 대상	가정 유사 이유	방법 유사 선택 첨가 인용		이유 조건
【기대부정】 10) + 이유	목적 방법 부정 선택 이유	유사 목적 배경 가정 대상 이유 방법 조건 부정	대상 목적 이유 조건	이유 유사 가정 비교	방법 유사	이유 조건
【결과】 + 유사	목적 유사 판정	조건 동시 유사 방법 대립 이유	유사 이유 조건	이유 동시 대립 유사	유사 대립	
【동시】 + 유사 이유 대상	가정 유사 이유 조건 기대부정	결과 유사 부정 대립	가정 결과 대상 목적 배경 유사	대상 이유 결과 유사 방법 배경	결과 유사 이유 대상	대상 이유
【의문】 +	대상 유사				방법 유사 목적 의문 조건	

선행 연결표현이 ‘가정’¹¹⁾의 의미를 담고 있는 ‘-(으)ㄴ 때, -(을)ㄴ 경
우, -(으)ㄴ 경우’가 쓰인 경우, ‘상황 표현하기’(이하 ‘상황’)는 ‘이유, 유
사, 대립, 배경, 조건, 결과, 인용, 배경, 의문, 비교, 전환, 목적, 대상, 선택’ 등의 14개 후행 연결표현의 의미범주와 공기한다.¹²⁾ ‘가능성 표현하

10) 서희정 · 홍윤기(2010)에서 ‘양보’를 대신해 사용한 개념이다.
11) 연결어미의 의미는 선후 문장의 의미와 통사적관계에 의해 여러 의미로 해
석될 수 있다. 이 연구는 대표적인 의미 하나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목정수
· 유현조(2007:293~294)에서도 취한 방법이다.

기’(이하 ‘가능성’)와 ‘단언하여 표현하기’(이하 ‘단언’)는 12개 의미 범주와 공기한다. ‘추측하여 표현하기’(이하 ‘추측’)는 8개와 공기하고 ‘경향(성) 표현하기’(이하 ‘경향’)는 4개 의미 범주와만 공기한다. ‘제시하여 표현하기’(이하 ‘제시’)는 ‘유사, 방법’과만 공기한다. ‘유사(동등)관계’의 ‘-고, -(으)며’가 선행할 경우, ‘가능성’의 경우 ‘선택, 조건, 유사, 이유, 전환, 가정, 결과, 강조, 기대부정, 인용, 방법, 대립, 동시’ 등 13개 의미 범주와 공기한다. ‘이유(원인)’의 ‘-여, -기 때문에, -(으)므로, -로 인해’ 등이 쓰인 경우, ‘가능성’의 후행 연결표현에 ‘부정, 선택, 결과, 유사, 이유, 목적, 정도, 순차, 전환, 인용, 기대 부정, 가정 조건, 대상, 방법, 대립’ 등 16개 의미 범주가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¹³⁾

‘대립’의 ‘-지만, -(으)나, -는 한편’ 등이 선행할 경우, ‘가능(성)’이 후행 연결표현에 ‘유사, 이유, 목적, 대립, 가정, 조건, 동시, 대상, 방법, 비교, 부정’ 등의 11개와 공기한다.¹⁴⁾ ‘조건’의 ‘-(으)면, -다면, -이라면, -려면, -자면’ 등이 쓰인 경우, ‘단언’은 ‘의문, 이유, 부정, 배경, 선택, 대상, 대립, 첨가, 결과, 유사, 동시, 조건’ 등의 13개 의미범주와 공기한다.¹⁵⁾ ‘배경’의 ‘-는데/은데’ 등이 선행할 경우, ‘가능성’이 9개의 의미 범주와 공기한다. ‘유사, 목적, 기대 부정, 가정, 첨가, 조건, 이유, 방법, 비교’ 등이다.¹⁶⁾ ‘선택’의 ‘-거나, -든지’ 등이 쓰인 경우, ‘가능성’이 ‘선택, 이유, 가정, 조건, 동시, 대상’ 등 6개와 공기한다.¹⁷⁾ ‘대상’의 ‘-에 대해’ 등이

12) 이하 예문에서 밑줄로 공기 관계를 형성하는 연결표현과 종결표현을 표시하고, 예문 뒤 괄호에는 각각의 의미와 의사소통기능을 표시하였다.

13) ‘단언’은 13개, ‘상황’은 10개, ‘제시’는 9개, ‘추측’은 8개, ‘경향(성)’은 6개와 공기한다.

14) ‘단언’은 10개, ‘상황’, ‘제시’, ‘추측’은 6개, ‘경향(성)’은 5개와 공기한다.

15) ‘추측’은 12개, ‘가능(성)’은 10개, ‘상황’은 6개, ‘경향(성)’은 5개, ‘제시’는 1개와 공기한다.

16) ‘상황’이 8개, ‘단언’은 7개, ‘추측’은 6개, ‘제시’는 5개, ‘경향(성)’은 4개와 공기한다.

17) ‘단언’은 6개, ‘상황’은 5개, ‘추측’과 ‘경향(성)’은 2개와 공기한다. ‘제시’는

선행하고 종결표현이 ‘상황’일 때, 후행 연결표현의 의미로 ‘유사, 배경, 가정, 부정, 이유, 방법, 전환, 동시, 대립’의 9개가 쓰일 수 있다.¹⁸⁾

‘방법’의 ‘-을/를 통해, -을 이용해’ 등이 실현될 경우, ‘단언’은 12개의 의미와 공기하는데, ‘유사, 이유, 결과, 가정, 첨가, 동시, 대상, 부정, 선택, 비교, 의문, 대립’ 등이다.¹⁹⁾ ‘첨가’의 ‘-(으)ㄴ 뿐만 아니라, -은 물론이고, -을 비롯해’ 등이 선행하면, ‘단언’은 ‘결과, 방법, 유사, 조건, 순차, 이유, 판정’의 7개와 공기한다.²⁰⁾ ‘부정’의 ‘-이/가 아니라, -지 않고’ 등이 쓰일 경우, ‘단언’은 ‘결과, 유사, 방법, 의문, 이유, 기대 부정, 목적’의 7개와 공기한다.²¹⁾ ‘목적’의 ‘-기 위해, -고자, -을/를 위해’ 등이 선행할 경우, ‘단언’이 ‘유사, 이유, 의문, 대립, 동시, 대상, 방법, 부정, 순차’ 등의 9개 의미범주와 공기한다.²²⁾

‘순차’의 ‘-(으)ㄴ 후에, -기 전에’ 등이 쓰인 경우, ‘가능성’이 5개의 의미범주와 공기한다.²³⁾ ‘비교’의 ‘-에 비해, -기보다, -와 달리, -와 같이, -듯이’ 등이 선행할 경우, ‘가능성’이 9개와 공기하는데, ‘첨가, 유사, 가정, 이유, 판정, 대립, 방법, 배경, 조건’ 등이다.²⁴⁾ ‘기대 부정’의 ‘-더라도, -아/어/여도, -에도 불구하고, -(으)ㄴ지라도’ 등이 선행할 경우, ‘단

선행 연결표현에 ‘선택’의 연결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 18) ‘제시’와 ‘가능성’이 7개, ‘추측’은 4개, ‘단언’은 3개, ‘경향(성)’은 2개와 공기한다.
- 19) ‘상황’은 12개, ‘가능성’은 9개, ‘추측’은 7개, ‘제시’는 6개, ‘경향(성)’은 3개와 공기한다.
- 20) ‘상황’은 4개와 공기한다. 나머지는 각각 3개의 후행 의미 범주와 공기한다.
- 21) ‘가능성’은 6개, ‘상황’은 5개, ‘추측’은 4개, ‘제시’는 2개, ‘경향(성)’은 1개와만 공기한다.
- 22) ‘가능’이 8개, ‘제시’가 7개, ‘상황’과 ‘추측’은 6개, ‘경향(성)’은 1개와 공기한다.
- 23) ‘추측’과 ‘단언’은 4개, ‘제시’는 3개, ‘상황’은 2개, ‘경향(성)’은 ‘목적’ 1개와 공기한다.
- 24) ‘단언’이 6개, ‘상황’이 5개, ‘추측’은 3개, ‘경향(성)’은 2개와 공기한다. ‘제시’는 선행 연결표현에 ‘비교’의 의미를 가지는 연결표현 형태가 쓰이지 않았다.

언'이 '유사, 목적, 배경, 가정, 대상, 이유, 방법, 조건, 부정' 등 9개와 공기한다.²⁵⁾ '결과'의 '-게, -도록' 등이 쓰일 경우, '단언'은 '조건, 동시, 유사, 방법, 대립, 이유'의 6개와 공기한다.²⁶⁾ '동시'의 '-와 더불어, -와 함께, -(으)면서' 등이 선행할 경우, '추측'이 '결과, 배경, 유사, 가정, 대상, 목적'의 6개와 공기한다.²⁷⁾ '의문'을 나타내는 '-는/인지' 등이 선행할 경우, '제시'가 방법, 유사, 목적, 의문, 조건'와, '가능'이 '유사, 대상'과 공기하고, 다른 의사소통기능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3. 학술적 글쓰기의 복합문 구성 양상

3장에서는 2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학문목적의 글쓰기에서 주로 활용되는 복합문의 구체적인 실현 양상을 제시하도록 한다.²⁸⁾ <표 2>를 보면, 연결표현의 공기관계는 의사소통기능에 상관없이 공통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특정한 의사소통기능에서만 실현되는 경우가 있다.

이 연구의 자료를 교육에서 활용할 경우에는 의사소통기능 전체에 걸쳐서 두루 쓰이는 공기관계와 그렇지 않은 공기관계를 학문목적 학습자에게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가정-유사'의 공기관계는 의사소통기능에 상관없이 실현된다. '가정-목적'의 공기관계는 '가능성', '단언', '상황'의 의사소통기능에서만 실현된다. 이러한 공기관계의 차이를 예를 통해 제시하고, 학습자들이 그 쓰임을 정확히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글감을 활용해 교육하고 학습함으로써 학습자들이 학문목적의 글쓰기에서 활용하는 의사소통기능과 그와 관련된 복합문 구성의 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5) '가능'이 5개, '추측', '상황'은 4개, '제시', '경향(성)'은 2개와 공기한다.

26) '상황'은 4개, '가능성', '추측'은 3개, '제시'는 2개와 공기한다. '경향(성)'은 선행 연결표현에 '결과'의 의미 범주를 나타내는 형태가 쓰이지 않는다.

27) '상황'은 6개, '가능성'은 5개, '단언, 제시'는 4개, '경향'은 2개와 공기한다.

28) 복합문의 예문은 홍윤기(2012ㄱ,ㄴ)을 참고하고 일부 수정하였다.

3.1. 선행 연결표현의 의미범주 ‘가정’

6개의 의사소통기능에 두루 쓰이는 ‘가정-유사’를 학습자들이 먼저 이해하고²⁹⁾ 글감을 통해 연습하는 것이 좋다.

- (1) ㄱ. 이러한 단위들은 적절한 수요나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설치될 수 있을 것이며 그럴 경우에도 기존의 여러 과들과 연구 단위들을 적절히 결합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정 - 유사 - 추측)
- ㄴ. 다음 [그림 3]과 같이 연구 범위를 제한할 때 논의의 방향을 일부 수정하고 그에 따른 연구 대상을 다시 제시하고자 한다. (가정 - 유사 - 제시)

5개 기능에 쓰이는 ‘가정-이유’, 4개의 기능에서 실현되는 ‘가정-대립’ 등을 제시함으로써 의사소통기능에 따른 복합문 구성을 이해할 수 있다.

- (2) ㄱ. 발음 진단 결과를 기록하는 경우 교사마다 기록 방법이 달라서 교정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 (가정 - 이유 - 경향성))
- ㄴ. 두 명사가 결합할 때 일본어는 ‘N1의 N2’ 구성으로만 실현되지만 한국어는 ‘N1의 N2’ 구성, ‘N1(의) N2’ 구성, ‘N1 N2’ 구성으로 실현될 수 있다. (가정 - 대립 - 가능)

한편, ‘상황’과 ‘가능성’의 기능에만 쓰이는 ‘가정-비교’, ‘단언’에만 쓰이는 ‘가정-부정’을 통해 특정 기능에 따른 공기관계를 학습할 수 있다.

- (3) ㄱ. <표3>은 담화 현장에 존재하는 것을 가리키는 3인칭 명사구를 조사류로 받을 때, 다른 조사류에 비해 무조사자가 월등히 많이

29) 지면상 공기관계의 양상을 두드러지게 보이는 예들을 위주로 제시한다.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정 - 비교 - 상황)

- 나. 문화 교육을 전제할 경우 문화 교육이 문화 지식의 전달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가정 - 부정 - 단언)

3.2. 선행 연결표현의 의미범주 ‘유사(동등)관계’

6개 의사소통기능에서 쓰이는 ‘유사(동등)-이유’를 먼저 연습한다.

- (4) ㄱ. 통사적 합성어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도 않고 일본어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지도 않으므로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곤란할 수 밖에 없다. (유사 - 이유 - 단언)

5개의 기능과 관련된 ‘유사(동등)-조건’, 4개의 기능과 관련된 ‘유사(동등)-유사(동등)’, ‘유사(동등)-방법’ 등을 통해 각각의 차이점을 파악한다.

- (5) ㄱ. 프로젝트 수업을 무엇이라 여겼으며 실제로 어떤 작업을 했는지 살펴 본다면 그 구성 원리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유사 - 조건 - 추측)
- 나. 그간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문학(시) 교육에 내장된 풍부한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식되었고, 극단적인 경우 ‘한국문학을 전공하려는 극소수의 학습자를 제외하면 아무런 실제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었다. (유사 - 조건 - 경향성))
- 다. 전자는 주로 한국 언어와 문학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가지며, 후자는 한국 역사, 정치, 경제, 문화를 중심으로 하고 한국어 능력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사 - 유사 - 상황)

- ㄹ.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의 말하기 능력 배양을 위한 모형을 제시하고, 그 적용 가능성을 실제 사례를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유사 - 방법 - 제시)
- ㅁ. 이를 자신의 관점과 비교해 볼 수 있으며,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정리할 수 있다. (유사 - 방법 - 가능성)

3.3. 선행 연결표현의 의미범주 ‘이유(원인)’

6개의 의사소통기능에서 쓰이는 ‘이유-유사’, ‘이유-이유’ 등을 우선적으로 확인한다.

- (6) ㄱ. 병렬코퍼스는 각 언어별 코퍼스 파일과 정렬파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소 많은 코퍼스 파일이 필요하며, 전산작업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파일이 많다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유 - 유사 - 가능성)
- ㄴ. 학습자의 능력을 끌어올려 훌륭한 일본어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목표도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다. (이유 - 유사 - 추측)
- ㄷ. 교수자는 학습자의 상태를 늘 점검하여서 자신의 교수법을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유 - 유사 - 단언)
- ㄹ. 그러나 한국어 학습자는 부끄럽거나 무뚝뚝한 성격으로 인해, 또는 적당한 한국어 표현을 몰라서 칭찬에 반응 없이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다. (이유 - 이유 - 경향(성))

그리고 4개의 기능과 관련 있는 ‘이유-대립’ 등을 연습한다.

- (7) ㄱ. 그러나 한국 대사관, 한국 문화원, 여행사 등 정치, 사회, 문화, 관광과 관련된 영역에서의 통역도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영역을 고루 다루되 경영 텍스트에 좀더 많은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텍스트를 선정하고 있다. (이유 - 대립 - 상황)

- ㄴ. 본 연구에서는 초, 중, 고급의 3단계를 세분화하여 6단계로 하되, 각 단계를 독립적인 단계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유 - 대립 - 제시)

3.4. 선행 연결표현의 의미범주 ‘대립’

6개 의사소통기능에 모두 관련된 ‘대립-이유’의 공기관계를 확인한다.

- (8) ㄱ. 선정된 항목의 수가 기존의 연구자들이 선정한 항목의 수보다 는 작지만, 각각의 내용을 더 구체적인 의사소통 활동으로 세분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교육 활동의 양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립 - 이유 - 추측)

- ㄴ. 일본어에서는 ‘의’가 실현될 수 있으나 한국어에서는 ‘의’가 실현될 수 없으므로 (12)는 다음과 같이 수정해야 한다. (대립 - 이유 - 단언)

- ㄷ. 두 언어 혹은 다언어 사전이 있기는 하나 시각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여기에서는 영어 학습자 사전과 마찬가지로 표제항목과 뜻풀이가 한 언어로 되어 있는 단일어 사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대립 - 이유 - 제시)

다음으로, 4개의 기능에서 공기하는 ‘대립-유사’, ‘대립-방법’의 관계를 파악하고, 기능별로 다른 양상을 이해한다.

- (9) ㄱ. 물론 학습자의 언어권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나 교수·학습의

노력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지만, 그러한 연구의 내용은 거의 대조 분석이나 오류 분석에 치중되었고 언어권별 교수·학습은 대개 일본, 중국이나 영어권 출신 학습자를 위한 일부의 프로그램에 국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립 - 유사 - 가능성)

- ㄴ. 60주 과정은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한국어학부의 교육 기간은 편입 시험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고 있었다. (대립 - 방법 - 상황)

마지막으로, ‘경향(성)’의 기능에서만 쓰이는 ‘대립-의문’을 확인하고 특정한 공기관계를 인지한다.

- (10) ㄱ. 이와 같은 설명은 접속 어미 ‘-어서/아서’가 ‘-었/았-’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명백히 하고 있지만 왜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지 추론하기가 힘들다. (대립 - 의문 - 경향(성))

3.5. 선행 연결표현의 의미범주 ‘조건’

6개의 기능에 모두 쓰이는 공기관계가 없으므로 5개의 기능에 쓰이는 ‘조건-유사’, ‘조건-대립’, ‘조건-이유’의 공기관계를 이해한다.

- (11) ㄱ.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가르칠 것인지와 무엇을 배울 것인가가 분명하게 제시되면 효과적인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것이며, 아울러, 교재를 구성할 때에도 각 단계별 교육과정 목표에 근거를 둔 체계적인 단원 구성이 될 수 있다. (조건 - 유사 - 가능성)
- ㄴ. 파일이 많아지게 되면 대역 파일을 찾기도 어려워지며 정렬정보를 가진 파일을 연결시키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조건 - 유사 - 경향(성))

- ㉔. 모국어 화자라면 누구나 (1가)는 자연스러운 담화이지만, (1나)와 같은 문장 연속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것이다. (조건 - 대립 - 추측)
- ㉕. 작품을 제대로 선정만 한다면 초급의 경우도 문학교재를 이용하여서 흥미로운 한국어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조건 - 이유 - 상황)

5개의 기능과 관련이 있는 ‘조건-선택’, ‘조건-배경’의 공기관계의 예를 확인하고, 이를 글감을 활용해 연습한다.

- (12) ㉖. 한국어 교육의 성격과 목표가 정해지면, 이에 따라 가르치거나 배워야 할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조건 - 선택 - 단언)
- ㉗. 학습자의 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면 앞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구체적인 논의는 3장에서 진행하고자 한다. (조건 - 배경 - 제시)

3.6. 선행 연결표현의 의미범주 ‘배경’

6개의 기능에 두루 쓰이는 ‘배경-이유’의 공기관계를 먼저 이해한다.

- (13) ㉘. 화자의 발화가 진행되는 논의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음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이는 진행되는 논의에 대한 자신의 구체적인 견해를 나타내므로 논쟁을 적절하게 구성하는 데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 (배경 - 이유 - 가능성)
- ㉙. 대부분의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교안이 교사용 지침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교안이 외부로 공개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서 교재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교사의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배경 - 이유 - 경향(성))

ㄷ. 아울러 강승혜는(2003)는 한국어교육 내용의 하위 주제를 모두 8개로 나누었는데, 본고에서는 9개 하위주제에 다시 영화/드라마(시청각분야)와 통번역분야 그리고 역사분야를 추가시켜 모두 11개의 하위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배경 - 이유 - 제시)

그리고 4개의 기능과 관련된 ‘배경-조건’, ‘배경-유사’의 공기관계의 예를 확인하고 연습한다.

(14) ㄱ. ‘궁전’은 [군전]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현상이 이 방언권에 있는 학습자들이 범하는 중간언어적 특징이라면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배경 - 조건 - 추측)

ㄴ. 국어에서 조사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 즉 무조사에 대한 관심은 주시경(1910)의 ‘속뜻’에 관한 언급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이후로 국어학사에서는 이 현상을 ‘격조사의 생략(또는 비실현)’으로 보고 어떠한 환경에서 격조사가 생략되는가를 밝히는 데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배경 - 유사 - 상황)

마지막으로 ‘단언’의 기능에서만 실현되는 ‘배경-결과’를 이해한다.

(15) ㄱ. 이 단계에서는 분석력, 기억력, 전달력이 필요한데 교사는 학생들이 각자의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배경 - 결과 - 단언)

3.7. 선행 연결표현의 의미범주 ‘선택’

‘선택’의 연결표현이 쓰인 경우, 개별 기능에 따른 공기관계를 이해하도록 한다. ‘선택-이유’, ‘선택-대상’은 3개의 기능과 관련이 된다.

- (16) ㄱ. 한국어의 의미의 폭이 중국어보다 크거나 대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 (선택 - 이유 - 가능성)
 ㄴ. 많은 학습자들이 다양한 뒷받침 방식을 사용할 줄 모르거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개인적 경험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경우가 많다. (선택 - 대상 - 경향(성))

‘선택-조건’은 ‘가능성’, ‘추측’의 기능과 관련 있고, ‘선택-결과’는 ‘단언’, ‘선택-대립’은 ‘상황’의 기능에서만 쓰이므로, 구분하여 이해한다.

- (17) ㄱ. 동료 학습자가 통역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통역이 잘못되었을 경우 다른 학습자들이 통역을 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선택 - 조건 - 추측)
 ㄴ. 사실 실제 교수-학습에서 이러한 목표를 지향하는 교수-학습 내용이 배정되어 있지 않거나 제대로 다루고 있지 못하므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다. (선택 - 결과 - 단언)
 ㄷ. 그리고 한국문화 범주 안에서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거나 한국어 범주 안에서 한국 문화 교육이 실시되지만, 요르단 대학교에서는 한국어 교육 안에서 문화 교육을 하고 있다. (선택 - 대립 - 상황)

3.8. 선행 연결표현의 의미범주 ‘대상’

4개 기능에 쓰이는 ‘대상-유사’, ‘대상-조건’을 먼저 이해하도록 한다.

- (18) ㄱ. 따라서 정부에서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재외동포 모국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꾸준한 지원을 할 것이다. (대상 - 유사 - 가능성)
 ㄴ. 이 과정에서 결과물에 대해 동료들이나 교사로부터 평가를 받

게 되며, 이들과 결과물을 공유해 나간다. (대상 - 유사 - 상황)

3개의 기능과 관련된 ‘대상-대립’, ‘대상-조건’의 공기관계를 파악한다.

(19) ㄱ. 구어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음운 변동 현상에 대해서는 학습자들이 듣고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교육할 필요가 있겠으나, 이 글에서는 교육 내용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한다. (대상 - 대립 - 제시)

ㄴ. 이 표현에 대해 충분히 연습을 했을 수도 있지만 학습자의 숙달도 점검을 위해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대상 - 대립 - 단언)

ㄷ. 어떤 학습자들은 단어의 뜻에 대해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면 그것이 쓰이는 맥락에서 그 뜻을 알아내려고 할 것이다. (대상 - 조건 - 추측)

그리고 ‘경향’의 기능에만 쓰이는 ‘대상-순차’의 공기관계를 확인한다.

(20) ㄱ. 이 표현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두 가지 상황을 예측한 후 연습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다. (대상 - 순차 - 경향(성))

3.9. 선행 연결표현의 의미범주 ‘방법’

6개 의사소통기능에 모두 쓰이는 ‘방법-이유’의 공기관계를 연습한다.

(21) ㄱ. 불어에서 완료(점괄상)와 미완료(지속상)의 대립이 ‘복합과거’와 ‘반과거’를 통해 명확히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불어권 화자들은 한국어 시제 체계에서 ‘과거선어말 어미’가 ‘완료’뿐만 아니라 ‘미완료’를 포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방법 - 이유 - 가능성)

- ㄴ. 담화 능력이란 오랜 기간을 통해 언어 사용자들 사이에 축적된 화용적 정보에 의해 표현되는 능력이기 때문에 언어 사용국의 문화가 투영된 경우가 많다. (방법 - 이유 - 경향(성))
- ㄷ. 교사의 경력에 따라서 내용 및 교수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방법 - 이유 - 상황)

더불어 5개 기능에 쓰이는 ‘방법-유사’의 공기관계를 파악한다.

- (22) ㄱ. 이러한 학제간 협력을 통해 인접 학문은 한국어 교육학이 성장하는 토양을 만들고 자양분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방법 - 유사 - 단언)

- ㄴ. 영어교육 분야의 학술지(영어교육, TESOL Quarterly, The Journal of Asia TEFL)에 실린 연구논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세계적인 큰 흐름이 한국의 연구방법론 및 연구 성향과 어떠한 측면에서 다른지 비교 분석해 보고 바람직한 연구의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방법 - 유사 - 제시)
- ㄷ.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한국어 학습자들이 나타내는 발음 오류, 특히 억양의 오류가 어떤 유형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오류 유형의 원인이 학습자 모국어의 간섭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방법 - 유사 - 추측)

3.10. 선행 연결표현의 의미범주 ‘첨가’

6개의 기능에 모두 쓰인 ‘첨가-이유’의 공기관계를 이해한다.

- (23) 가. 교수요목은 교재 편찬의 기본 지침이 될 뿐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까지 제시해주기 때문에 한국어교육 담당자들에게 더 필요하게 여겨졌을 수 있다. (첨가 - 이유 - 가능성)
- 나. 학습자들은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터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각 방법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첨가 - 이유 - 추측)
- 다. 이러한 교수-학습 방법은 학생들이 지루함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여 학습 효과를 얻기가 쉽지 않다. (첨가 - 이유 - 경향)
- 르. 문화 교육을 확대하는 것은 교육적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적 효용성도 크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이 점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첨가 - 이유 - 단언)
- 미. 문화적 요소를 일부 반영한 교재가 활용될 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을 전면에 내세운 교재들도 있기 때문에 문화 교육의 가치는 이미 한국어교육계에서 공유하고 있는 썬이다. (첨가 - 이유 - 상황)
- 바. 두 언어는 어순이 다를 뿐만 아니라 문법 범주도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논의한 것과는 다른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첨가 - 이유 - 제시)

3.11. 선행 연결표현의 의미범주 ‘부정’

6개 의사소통기능에 모두 쓰이는 ‘부정-이유’의 공기관계를 연습한다.

- (24) ㄱ. 실제, 말하기는 암기에 의한 관용적인 표현의 암기가 아니라, 이해와 기억을 통해 학습된 내용을 사용, 적용하는 활동이므로, 말하기 활동 전에 듣기와 읽기 활동이 선행될 수 있다. (부정 - 이유 - 가능성)
- ㄴ. 이에 비해 대학원생들은 수업에 있어서 한국어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교수가 영어로 설명을 해 주어서 크게 문제점을 느끼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부정 - 이유 - 경향 (성))
- ㄷ. 한국 정부는 중동에 대하여 오로지 원유도입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삶, 한국인들의 문화, 한국민의 가장 고유한 것들을 중동 사람들에게 제시하여 진정한 문명 간의 협력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부정 - 이유 - 단언)
- ㄹ. 문어체와 구어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들은 시골 방언이 그들이 언어적 사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추상적인 어휘들을 학습하고 관용적 표현을 학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정 - 이유 - 상황)
- ㅁ. 어휘는 개별 단어로만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구 형태로 학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부정 - 이유 - 제시)

그리고 ‘추측’과 ‘가능성’의 기능에서만 쓰이는 ‘부정-가정’의 공기관계를 제시하여 특정 기능에서의 공기관계를 이해한다.

- (25) ㄱ. 사실 실제 교수-학습에서 이러한 목표를 지향하는 교수-학습

내용이 배정되어 있지 않고 또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할 경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정 - 가정 - 추측)

3.12. 선행 연결표현의 의미범주 ‘목적’

5개의 기능에서 나타나는 ‘목적-유사’ 등의 공기관계와 4개의 기능에 쓰인 ‘목적-대립’, ‘목적-배경’ 등의 공기관계를 확인한다.

- (26) 가. 전 세계 각국은 21세기를 맞아 국가 생존을 위해 치열한 경제 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그 배경에 교육, 문화 전쟁도 벌어지고 있다. (목적 - 유사 - 상황)
- 나. 실질적으로 학부 과정에 교과목을 개설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수강 인원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한국어의 경우 이를 예외사항으로 두는 듯하다. (목적 - 대립 - 추측)
- 다. 따라서 국외에서는 좋은 통역사를 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내에서 이에 대한 중요성을 아직까지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목적 - 대립 - 단언)
- 르. 규칙을 체득하게 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연습 자료가 필요한데,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자료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목적 - 배경 - 경향(성))

그리고 ‘제시’와 ‘단언’의 기능에서만 실현되는 ‘목적-방법’의 공기관계와 ‘가능성’에서만 실현되는 ‘목적-가정’의 공기관계를 제시하여 특정 기능에 따른 공기관계를 구분하여 이해한다.

- (27) 가. 이를 위해 {-음}+{-이}, {-음}+{-을}과 호응하는 상위문 서술어를 자료 I 을 통하여 통계적으로 분류하려고 한다. (목적 - 방법)

- 제시)

- ㄴ. 향상도를 보기 위해서 전단계의 결과와 비교를 해야 할 경우 일목요연하게 결과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도 단점으로 들 수 있다. (목적 - 가정 - 가능성)

3.13. 선행 연결표현의 의미범주 ‘순차’

5개의 기능에 쓰이는 ‘순차-유사’의 공기관계를 먼저 연습한다.

- (28) ㄱ. 이는 쓰기의 결과에 도달하기 전에 토론을 통한 협력 과정 속에서 학생 상호간에 많은 도전을 줄 수 있으며 더욱 활발한 사고, 작문 과정으로 유도할 수 있다. (순차 - 유사 - 가능성)
- ㄴ. 실제 교재를 제작하기 전에 실험 단계를 두어 직접 사용해 보고 수정하여 책을 내는 것이다. (순차 - 유사 - 단언)
- ㄷ. 인터넷 등으로 한국의 문화를 접한 후 학생들은 두 나라의 문화가 어디에서 차이가 나고 어떤 점이 유사한지를 잘 알고 있다. (순차 - 유사 - 상황)
- ㄹ. 문화 교육의 일반 목표를 설정한 후에 단계별 목표를 정하고 학습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순차 - 유사 - 제시)

그리고 ‘가능’, ‘단언’, ‘추측’ 기능에 쓰이는 ‘순차-조건’과 ‘제시’, ‘경향(성)’ 기능에 쓰이는 ‘순차-목적’을 제시하고 차이를 이해하도록 한다.

- (29) ㄱ. 학생들은 작가와 대표작에 대해 배우고 나서 이 총체적 설명을 보게 되면 한국 문학의 흐름에 대해서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것이다. (순차 - 조건 - 추측)
- ㄴ. 한편, 대화문을 읽기 전에 학생들이 발화 실수를 하는 일이 없

도록 하기 위해 여러 차례 읽기 연습을 하는 경우가 많다. (순차 - 목적 - 경향(성))

3.14. 선행 연결표현의 의미범주 ‘비교’

5개의 기능에 쓰이는 ‘비교-이유’의 공기관계를 먼저 파악한다.

- (30) ㄱ. 5에서 보듯이, 5.1의 연습 규칙의 경우 받침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학습 부담이 적을 것이다. (비교 - 이유 - 추측)
 - ㄴ. 양적 연구는 모든 개인의 공유된 객관적 실체에 초점을 두고 있는 데에 비해, 질적 연구는 개인적인 현상학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구인으로서의 실체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 (비교 - 이유 - 경향(성))
 - ㄷ. 그것은 한국어에서는 시간 부사어 뒤에 ‘의’가 필요하지 않은 데 비해 일본어에서는 ‘の’를 사용하므로 한국어로 표현할 때도 ‘의’를 사용하는 것이다. (비교 - 이유 - 단언)

그리고 ‘가능성’, ‘상황’의 기능에 쓰이는 ‘비교-첨가’, ‘가능성’의 기능에서만 쓰이는 ‘비교-대립’을 통해 한정된 공기관계를 이해한다.

- (31) ㄱ. 백과사전적 학습자 사전은 기존의 언어 사전에 비해 설명이 자세할 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그림 자료가 많이 수록되어 있다. (비교 - 첨가 - 상황)
- ㄴ. ‘이/가’의 사용비율이 다른 것에 비해 제일 높다는 점은 田窪(다쿠보, 1990)의 주장을 일부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다. (비교 - 대립 - 가능성)

3.15. 선행 연결표현의 의미범주 ‘기대 부정’

5개의 기능에 쓰이는 ‘기대 부정-이유’를 먼저 이해하고 연습한다.

- (32) ㄱ. 또한 발음 오류의 교정은 일시적으로 오류가 교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상태를 유지하기 힘들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쉽다.
(기대 부정 - 이유 - 경향성))

그리고 3개의 기능에 쓰이는 ‘기대 부정-방법’, ‘기대 부정-조건’, ‘기대부정-유사’ 등의 공기관계를 보이고 공기관계의 차이를 파악한다.

- (33) ㄱ. 한국어 및 문화 교육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상황에 따라 목적어나 목표가 다를 수 있다. (기대 부정 - 방법 - 가능성)
- ㄴ. 외국어의 경우에는 형태와 의미를 정확하게 안다고 하더라도 연습을 통해 실생활에서 쓰이는 용법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기대 부정 - 방법 - 제시)
- ㄷ. 외국어는 학습자가 목표어의 형태와 문법을 정확하게 배웠다 하더라도 배운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사용지식을 습득하지 못하면 원만한 의사소통에 실패할 것이다. (기대 부정 - 조건 - 추측)
- ㄹ. 만족할만한 발음 수준에 도달할 수는 없을지라도 항상 해당 발음을 의식하고 교사가 제공해 준 자료를 토대로 연습을 해야 한다. (기대 부정 - 유사 - 단언)
- ㅁ. 순수 실험 연구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윤리적인 문제를 수반할 수 있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으며 여러 현실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대 부정 - 유사 - 상황)

3.16. 선행 연결표현의 의미범주 ‘결과’

4개의 기능에서 실현되는 ‘결과-유사’의 공기관계를 연습한다.

- (34) ㄱ. 네 가지 언어기능이 적절히 통합될 수 있도록 수업 자료를 구성하며 강의 주제와 주제를 구성하는 요소들, 주제를 암시하는 단어들, 교수의 개성 등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행동, 표정 등)등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다. (결과 - 유사 - 가능성)
- ㄴ. 초급 교재에서는 문법과 더불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능별 학습 활동을 강조하고 네 가지 기능이 골고루 학습될 수 있게 구성하는 것이 좋다. (결과 - 유사 - 제시)

다음으로, 2개의 기능에 쓰이는 ‘결과-조건’, ‘결과-동시’, ‘결과-대립’의 공기관계를 확인하고, 기능별 차이점을 이해한다.

- (35) ㄱ. 더욱이 발음을 잘하도록 입 모양, 혀의 위치 등을 연습시키는 방법을 택한다면 더 구체적인 연습이 될 것이다. (결과 - 조건 - 추측)
- ㄴ. 학습자가 실제 상황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제와 유사한 상황을 제시하면서 해당 표현을 설명해야 한다. (결과 - 동시 - 단언)
- ㄷ. 학습자들이 전공 과정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전공별로 예비 학습을 해주어야 하지만 현장의 한국어 교육은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 - 대립 - 상황)

3.17. 선행 연결표현의 의미범주 ‘동시’

5개의 기능과 관련된 ‘동시-유사’의 공기관계와 4개의 기능에서 실현

되는 ‘공기-이유’의 공기관계를 확인하고 연습한다.

- (36) ㄱ.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동시 - 유사 - 단언)
- ㄴ. 외국인력 도입제도의 짙은 변화와 합법화조치 등을 거치면서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수가 증감함으로써 그 수는 지속적으로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동시 - 이유 - 경향(성))
- ㄷ. 대학의 외국인 글쓰기 교육에서 문법 연습을 주로 하면서 정확성에 치중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동시 - 이유 - 제시)

다음으로 ‘가능성’, ‘추측’ 기능에 쓰이는 ‘동시-가정’와 ‘상황’ 기능에서만 쓰이는 ‘동시-방법’을 제시하여 복합문 구성의 차이를 이해한다.

- (37) ㄱ. 이러한 준거들은 의사소통의 숙달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교육과정 내용으로 선정된 의사소통 기능들을 조직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준거로 작용할 수 있다. (동시 - 가정 - 가능성)
- ㄴ. 문장을 속도감 있게 읽으면서 교수자가 학습자 한 사람에게 꼭 맞는 의미 있는 연습을 유도할 경우 학습이 적절히 이루어 질 것이다. (동시 - 가정 - 추측)
- ㄷ. 특히 최근에 언어 교육에서 어휘 학습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어휘 교육을 통해 언어와 문화 학습이 통합되는 새로운 학습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동시 - 방법 - 상황)

3.18. 선행 연결표현의 의미범주 ‘의문’

‘가능성’과 ‘제시’의 기능에서만 쓰이는 ‘의문-유사’의 공기관계와 ‘제

시'의 기능에서만 쓰이는 '의문-의문'의 공기관계를 연습한다.

- (38) ㄱ. 이 논문에서 소개한 학습과제와 수업이 학습자의 한국어 습득/ 학습 결과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규명할 길이 없고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도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의문 - 유사 - 가능성)
- ㄴ.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문법을 어떻게 기술하고 배열할지, 또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논의하고자 한다.(의문 - 의문 - 제시)

4. 결론

이 연구는 학술적 글쓰기에서 주로 쓰이는 종결표현의 의사소통기능과 연결표현들 간의 공기관계를 파악하여 학문목적의 글쓰기 교육에 활용할 만한 문장 구성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

학술적 글쓰기에 쓰이는 의사소통기능 중에서 '가능성 표현하기, 단언하여 표현하기, 추측하여 표현하기, 상황 표현하기, 제시하여 표현하기, 경향(성) 표현하기'의 여섯 가지 기능을 추출하고 이 기능을 실현하는 언어형식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선행 연결표현과 후행 연결표현이 나타내는 의미를 보이고, 이들의 공기 관계를 의사소통기능별로 파악하였다.

종결표현의 의사소통기능과 연결표현들 간의 공기관계를 <표 2>를 통해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기능별 공기관계의 양상을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을 18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렇나 과정을 통해 연결표현의 특정한 공기 관계는 종결표현의 의사소통기능에 상관없이 두루 쓰이는 것이 있는 반면에, 특정한 의사소통기능에서만 실현되는 공기관계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문목적의 학습자가 본 자료를 통해 복합문 구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공기관계를 먼저 이해하고, 적절한 글감을 활용해 다양한 연습을 해 보는 것이 좋다. 아울러, 특정한 공기관계와 특정한 의사소통기능의 관련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학습자들이 종결 표현의 의사소통기능을 정확히 인지하고, 기능별 차이에 따른 공기관계를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연결표현의 공기관계를 다루면서 연결표현간의 층위와 의미 관계까지는 논의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 연구를 기약한다.

<참고문헌>

- 강현화(2007). 한국어 표현문형 담화기능과의 상관성 분석 연구-지시적 화행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34, 이중언어학회, 1쪽~26쪽.
- 강현화 · 홍혜란(2010). 한국어 종결표현의 화행 기능과 한국어 모어 화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 - 발음치 분석과 담화 적절성 인식 조사를 토대로, <Foreign Language Education > 17-2, 한국외국어교육학회, 405쪽~431쪽.
- 국립국어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 2』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 구민정(2008). 한국어교육에서의 연결문 시간 표현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쪽~102쪽.
- 권미미(2008). 한국어교육문법의 인과 관계 연결어미 연구, <교육문화연구> 14, 인하대학교, 147쪽~174쪽
- 권수정(2010). 한국어 교육을 위한 양보관계 연결어미 연구, <인문논총 >20, 서울여자대학교, 198쪽~231쪽.
- 김은경(2006). 시간의 연결어미 “-아/어서”의 통사문적 특성을 이용한 지도 방안, <한국어 교육> 17-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47쪽~69쪽.
- 김지혜(2009). 한국어 연결어미 “-기에”와 “-길래”에 대한 연구 - 교육 문법 항목으로서의 “-기에” 설정을 위하여-, <우리어문연구> 33, 우리어문학회, 469쪽~492쪽.
- 김호정 · 강남욱(2010). 한국어 학습자의 문법 습득 양상 연구 (1) - “-고”와 “-어서”를 중심으로 -, <한국어교육학회지> 132, 한국어교육학회(구-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295쪽~323쪽.

- 노미연(2011). 한국어교육을 위한 연발 표현 연구 - “-자마자, -는 대로” 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63쪽~82쪽.
- 목정수·유현조(2007). 구어 한국어 접속문의 문장 패턴 연구- 접속 어미와 통사적 제약 현상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35, 한국어학회, 275쪽~303쪽.
- 박성욱(2010). 「연결어미 ‘-고, -어서, -는데, -니까, -면’의 성취도 양상 연구 : 사우디 유학생의 말하기, 쓰기 자료를 대상으로 한 종적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쪽~124쪽.
- 방성원(2011). 형식과 기능의 상관성에 기초한 한국어 교육 문법 연구, <어문연구> 39권 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343쪽~367쪽.
- 유혜령(2009). 한국어 교육에서 ‘화행’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어 교육> 20-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08쪽~207쪽.
- 유혜령·김유미(2008). 담화 유형과 화행 기능과의 상관성 연구, <언어와 문화> 4-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79쪽~201쪽.
- 서희정(2009). 「한국어교육을 위한 복합형식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8쪽~146쪽.
- 서희정·홍윤기(2010). 한국어교육에서 양보 연결어미에 대한 비판적 고찰, <새국어교육> 86, 한국국어교육학회, 185쪽~208쪽.
- 손재은(2007). 연결어미 “-는데”의 수업지도방안 연구, <한국어교육> 18,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87쪽~205쪽.
- 안주호(2002). 한국어 교육에서의 [원인] 연결어미에 대하여, <한국어 교육> 1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59쪽~180쪽.
- 오경숙(2011). 한국어 교육을 위한 ‘-었다가’의 문법 기술, <어문연구> 39권 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393쪽~419쪽.
- 이소현(2011). 구어에 나타나는 한국어 연결어미 ‘-는데’의 의미 연구 - 수사구조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 22-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73쪽~297쪽.
- 이수연(2011). 「한국어 문법교육에서의 연결어미 연구 - 시간표현 연결어미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쪽~110쪽.
- 이은경(2007). ‘-고’ 접속문과 ‘-어서’ 접속문의 비교 - 동사 유형 및 문형을 중심으로 -, <한국어 교육> 18-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333쪽~356쪽.
- 이은희(2006). 「한국어 교육을 위한 {-계}와 {-도록} 연구 - 코퍼스에 근거한 사용실태 분석과 그 교육 방안을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쪽~63쪽.
- 이은희(2009). 일본어 화자를 위한 연결어미 ‘-면서’의 교육 방안 - 한·일어 대조 분석에 의한 교육 내용 구성을 중심으로, <문법교육> 10, 한국문법교육학회, 263쪽~285쪽.

- 이정희(2011). 외국인의 한국어 구어 발화에 나타난 연결어미 사용 양상연구, <이중언어학> 45, 이중언어학회, 189쪽~207쪽.
- 이지영(1998). 한국어 연결어미의 교수 모형 : {-는데}, <한국어 교육> 9-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6쪽1~177쪽.
- 임지아(2009).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조건 연결어미 ‘-(으)면’의 연구. <동남어문논집> 28, 동남어문학회, 121쪽~146쪽.
- 장경희(1995). 국어 접속 어미의 의미 구조, <한글> 227, 한글학회, 151쪽~174쪽
- 조현용(2007). 한국어 교재의 기능 교수요목 제시 비교 연구, <어문연구> 35권 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377쪽~404쪽.
- 최문석(2004). 의미 중심의 연결어미 교육 방안 연구 - ‘-기예(는)’을 중심으로 -, <한국어교육> 15-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88쪽~189쪽.
- 한송화(2007). 외국어로서 한국어 문법에서의 새로운 문법 체계를 위하여-형식 문법에서 기능 문법으로-, <한국어 교육> 17-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357쪽~379쪽.
- 홍윤기(2009). 상적 의미에 따른 연결어미의 결합 제약 연구, <이중언어학> 40, 이중언어학회, 237쪽~266쪽.
- 홍윤기(2012ㄱ). 연결표현의 공기 양상과 종결표현의 의사소통기능 간의 상관성 연구, <국제어문> 55, 국제어문학회, 523쪽~563쪽.
- 홍윤기(2012ㄴ). 學問目的 글쓰기를 위한 문장 구성 틀 研究, <語文研究> 40-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375쪽~403쪽.

홍윤기(Hong, YunKi)

130-70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전화번호: 02-961-2379, Fax : 02-959-9018

전자우편: yunkihong@khu.ac.kr

접수일자: 2012. 8. 20

심사(수정)일자: 2012. 9. 10

게재확정: 2012. 10. 22